

제154차 연차 대회 소식

리셀 엠 벨슨 장로와 달린 에이치
오크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 받음.

1984년 4월 7, 8일에 열린 제154차 연차 대회에서 두 분의 사도가 새로 지지되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심장외과 의사인 리셀 엠 벨슨 박사와 유타주 대법원 판사인 달린 에이치 오크스 박사이다. 따라서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와 마크 이 피터슨 장로의 별세로 인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공석이 채워졌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여섯 분이 새로 지지되었다. 존 케이 카머 장로, 스펜서 에이치 오스본 장로, 로버트 비 하버트슨 장로, 디비어 해리스 장로, 러셀 시 테일러 장로, 필립 티 스태그 장로이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에는 바바라 비스미스 자매가 해임되고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가, 본부 청녀 회장에는 엘레인 캐넌 자매가 해임되고 아데스 지 캠프 자매가 지지되었다.

또한 다섯 개의 새로운 신진 건립이 발표되었다. 곧, 콜롬비아의 보고타, 캐나다의 온타리오 토론토,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이고,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 신진이 세워지게 된다. *

LA. 세리토스 지부 소식 (신학 연구반 개강)

18세~26세까지의 형제 자매들이 등록할 수 있고 27세 이상은 청강생으로 강의 들을 수 있는 세리토스 지부 신학 연

구반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지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특별한 복음 공부반이다. 회원들은 직장과 학교 생활에 매여 달리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말일에 회복된 참된 복음을 공부하기 위하여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세리토스 지부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박문정 형제는 1984년 1월 30일자 한국일보(미국판)에 "사해의 두루마리"에 관한 기사를 발표하였는데 지면 관계상 요점만 게재되었으며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에 전신된 사해의 두루마리 사진과 박문정 지부장의 사진도 함께 실렸다.

세리토스 지부장단은 격주로 지부장단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으며 2명의 시간제 선교사도 지부의 일을 돕고 있다.

현재 LA에는 3개의 지부가 있는데 LA 지부의 등록 회원수는 80여 명, 세리토스 지부는 60여 명, 그리고 밸리(Valley) 지부는 50명 정도가 된다. *



왼쪽부터 유 대만 형제(지부 서기), 안성인 형제(제1보좌), 박문정 지부장, 필 용신 형제(제2보좌)



신학 연구반 학생들과 함께 일할 선생님들 - 신학 연구반

서울 동 신학 연구원 입학식 및 졸업식



1984학년도 제1학기 동 신학 연구원 입학식 및 졸업식이 3월 3일 오후 6시부터 제기동에 위치한 동 신학 연구원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입학·졸업식에는 최 옥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 고 원용 동 스테이크 부장, 박 재암 영동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하여 감독, 고등 평의원 등 많은 신권 지도자들과 180여 명의 신입생 그리고 19명의 졸업생들과 가족들이 재학생들과 함께 자리하는, 동 신학 연구원 개원 이래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졸업식에서 교육 기구 대표상에 이 재호 형제(신당 와드) 원장상에 김 미자 자매(신당 와드), 김 흥배 형제(잠실 와드), 동창회 회장에 한 은수 형제(신당 와드)가 각각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격려 말씀 순서에서는 각 스테이크 부장과 서 회철 원장, 이 호남 장로가 각각 말씀했으며 신학 연구원 전통인 떡 파티가 역시 베풀어졌고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이번 학기의 신입생들 중에는 중등부 세미나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많이 등록하여서 잘 준비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

스테이크 대항 물문경 퀴즈 대회 (동 신학 연구원 중등부)

지난 1월 28일 서울 동 신학 연구원에 서는 서 회철 원장의 감리로 서울 지역의 4개 스테이크 신학 연구원 중등부 학생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테이크 대항 물문경 퀴즈 대회가 열렸다.

서울 스테이크를 비롯하여 동 스테이크, 영동 스테이크 그리고 동대문 스테이크에서 각각 4명의 학생이 출전하여 16명이 각 축전을 벌였다.

이들 16명의 중등부 학생들은 각자 소속된 스테이크에서 선발된 학생들로 신학 연구원 중등부 과정을 충실히 마친 학생들이었다. 시중 흥미 진지하게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앞어 두고 서울 스테이크와 영동 스테이크가 동점을 이루었는데 결국 영동 스테이크의 나 경원 형제가 정답을 맞추어 영예의 일등상을 차지 하였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신학 연구원 중등부 과정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아울러 매년 경전 퀴즈 대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퀴즈 대의 장면



인천 스테이크 대회



3월 10일~11일 양일간에 걸쳐 인천 스테이크 '84년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담동 와드에서 개최되었다.

허 채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강 민수 형제 이외 4명의 형제가 대신권에 지지되었고 신봉 와드와 세류 지부가 통합하여 신봉 와드로 조직되었으며 이 영희 형제가 감독으로 성임되었다.

한편 서울 서 선교부 소속의 오산 지부가 인천 스테이크에 편입되었다.

일요일 일반 총회에서 말씀한 신권 지도자들은 이 영희 감독을 비롯하여 홍 유남 부장, 홍 장석 부장, 겐슨 서울 서 선교부장 그리고 허 채 스테이크 부장이었다.

허 채 부장은 복음의 원리와 의식을 지키는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물론경의 진실성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참석 인원 약 650여 명 *

서울 강서 스테이크 대회

'84년도 전반기 강서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3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노량진 와드에서 이 호남 장로를 감리자로 모신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 이 도환 스테이

크 부장은 "원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되며 어떤 경우에도 표준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이 호남 장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경전을 상고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이 도환 스테이크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일반 총회에서 대제사에 정 영대 형제, 조 권포 형제, 김 지두 형제, 신 영근 형제가 지지되었으며 칠십인으로는 박 기성 형제, 황 문남 형제가 지지되었다. 한편 장로 신권에는 정 진환 형제, 김 동완 형제, 한 재국 형제, 고 재일 형제, 김 해영 형제, 최 신수 형제, 안 효돈 형제, 김 영상 형제, 송 재덕 형제, 전 광용 형제, 박 동식 형제, 윤 중용 형제, 이 용수 형제가 지지되었다.

스테이크 역원으로는 초등학교 회장에 윤 원강 자매, 청남 회장에 길 정권 형제, 독신 성인 부위원장에 이은경 자매가 각각 임명되었다.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39기 출발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39기 훈련을 마친 6명의 장로와 2명의 자매 선교사들이 각각 임지에서 봉사 중이다.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훈련을 마친 선교사들은 인천 농아 지부의 이경수 장로를 비롯하여 서 인수 장로(대구 스테이크-중리 와드), 정 경근 장로(청주 스테이크-논산 지부), 박 석천 장로(광주 스테이크-풍향 와드), 이 건철 장로(청주 스테이크-상당 와드), 배 상정 장로(청주 스테이크-상당 와드), 이 민재 장로(서울 스테이크-청운 와드) 그리고 자매 선교사인 박 순복 자매(청주 스테이크-삼성 와드)와 최 순미 자매(청주 스테이크-마천 지부)이다. *